

1. 연구목적

청소년가출이란 자신 및 자신을 둘러싼 주위환경에 대한 불만과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점에 대한 반발이나 해결을 위해 보호자의 승인없이 최소한 하루밤 이상 무단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충동적 혹은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서울 YMCA, 1996).

가정생활 변화와 위기에 대처하는 기술이나 전략의 미숙함, 자녀에 대한 일관성 없는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 제일주의적 사고와 주변의 자극적인 향락문화등은 발달특성상 충동성이 강한 청소년들의 적응상 한계에 다다르게 하며,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합당한 방법을 찾지 못해 가출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청소년가출이 빈번하게 보고되면서, 청소년기의 가출은 특별한 가정적, 학교환경적 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개인적 특성에 의해 일어난다기 보다 청소년기에 한 두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고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출을 청소년기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가출을 조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되는 바가 크다. 청소년의 가출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기에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가출로 인해 당사자인 개인의 부랑, 부도덕 및 또 다른 비행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 가족문제, 사회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첫번째 가출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한 번 가출을 하

면 그 이후에는 습관적으로 가출하게 되고, 이것이 오래 되면 장기결석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중퇴하게 되고, 가출 후 불량 청소년과 어울려 가스나 본드 흡입을 하거나 다른 비행행위를 학습하게 되며, 밤거리를 배회하면서 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등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다. 또한,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까지 자리잡고 있는 단란주점, 락카페, 성인 오락실등 유해업소 업주는 가출청소년들이 숙소를 필요로 하며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점등 약점을 이용해 이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함으로써, 서로의 이해관계가 부합되어 단순충동의 가출청소년이나 병리 가족으로부터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가출 역시 더 장기화될 수 있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나 ‘나눔의 집’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전국적 분포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는 홍보되어 있지 못하며, 일시적인 보호기관이므로 장기간의 보호를 요하거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보호·수용하는 단체나 시설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가출청소년을 비롯한 문제청소년의 교육기관의 현안과제 및 가출청소년의 수용시설에 대한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다양한 욕구로 인해 가출을 하는 청소년의 적응을 돕기 위한 시설의 종류나 운영 지침등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청소년가출의 실태

청소년기는 주체하기 힘든 자기 자신의 내부적 욕구와 강압적인 외부로부터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내적, 외적 욕구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간의 불균형은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부추긴다. 바로 이러한 불균형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행동 중 최근에는 가출을 하는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출은 가출자의 동기에 따라서 도피형, 목적지향적, 맹목적 가출로 나눌 수도 있고 가출의 빈도에 따라 일과성 가출과 상습적 가출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의 준비 끝에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충동적 가출과 계획적 가출로, 가출의 단위에 따라 개인 가출, 집단 가출, 연쇄 가출로도 분류될 수 있다. 최근의 청소년가출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거나 희망하는 공부나 취직, 직업훈련을 받기 위한 욕구로 가출하는 자립, 목적지향적 가출 보다는 도피적, 무목적적, 가정탈출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즉,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강한 갈등과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가출을 선택하거나 가출을 외박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여 청소년 특유의 모험심과 방랑적 기분, 새로운 체험에 대한 동경심리로 가출을 하거나 친구와 동반 또는 연쇄적으로 가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가출의 실태는 어떠한가. 청소년가출에 대한 수량적 파악과 가출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자료는 흔하지 않다. 그 이유는 가출청소년 수용 시설도 손꼽을 정도로

적고, 가출 후 불법이긴 해도 이들이 취업할 만한 산업이 발달하여 가출자들이 신속하게 흡수되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서 가출청소년을 수적으로 과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가출이 매해 1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미신고자가 많아서 실제로는 10만-12만명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 청소년 전문가의 추정이다.

가출청소년이 경찰 단속에 의해 적발되어 아동 일시보호시설이나 육아시설에 위탁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에 의하면, 1995년 20세 미만의 가출인은 16,013명으로 가출자 40,117명 중 39.92%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가출인 총수도 늘고, 전체 가출인 중 20세 미만 가출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94년의 37.70%보다

<표1> 가출인 발생 및 처리상황

(단위: 명)

구 분	발 생	연 령		처 리			
		20세 미만	20세 이상	보호자 인계	수 용	수 배	기 타
1995	40,117	16,013	24,104	19,141	928	20,048	125
1994	35,865	13,522	22,343	21,848	590	12,433	994
1993	40,203	11,933	28,270	18,710	606	19,740	1,147
1992	39,431	12,479	26,952	12,729	751	25,025	926
1991	37,569	11,414	26,155	10,712	848	25,247	762

* 출처 : 청소년백서 1995.

늘었으며, 93년의 29.68%에 비해서는 무려 10% 정도 증가했다.

한편, '92년과 '93년도 보호관찰 대상자 총 6,601명에 대한 가출 경험을 분석한 바(서울보호관찰소, 1994)에 의하면 가출경험자는 2,705명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하였고, 가출경험자 2,750명 중 1회의 가출경험자가 21.8%(1,439명)로 가장 많고, 3회 이상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11.2%(738명)나 된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성호(1992)의 연구에 의하면 국민 학생의 4.3%, 중학생의 13.8%, 고등학생의 18.0%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반청소년의 가출 경험은 비행청소년과 비교하여 낮았지만, 청소년 자신이 청소년기의 가출에 대해 허용적이라는 점과 한 번이라도 가출충동을 느낀 청소년이 10명에 7-8명꼴이라는 조사결과(YMCA, 1991)를 고려한다면, 청소년 가출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출청소년의 생활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엄명용, 1995). 가출청소년은 가출한 이유를 둘러대기 위해 부모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또래와 동반 가출을 하거나 가까운 친구의 가출로 인해 또래 집단의 연쇄적인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가출 후에는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과 어울려 가스, 본드를 흡입하거나 비행행위와 불건전한 특유의 언어를 습득한다. 오락실이나 만화가게를 자주 가다가 더 발전하여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는 유흥업소에 드나들고, 남여 청소년이 혼숙을 하기도 한다. 아무도 자신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재미있는 생활만이 중요할 뿐, 미래에 대한 계획은 거의 갖지 않고 생

활한다. 현재의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돈은 점점 더 필요하므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생각하지만, 특별한 기술도 없고, 자격도 없고, 연령 제한이 있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 남자들의 경우, 막노동, 주유소 주유원, 식당이나 술집 웨이터, 뼈끼(호객행위를 하는 사람) 등으로 일한다. 반면 여자들의 경우, 술집이나 유흥·향락업소의 종업원으로 취업해 윤락행위를 하며, 취업을 하지 않은 일부 가출자들은 갈취, 차비 동량, 구타 후 지갑들고 도망가기 등으로 가출경비를 조달한다고 한다. 유흥업소나 주유소 등에서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시킬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가출청소년을 고용하게 되고, 가출청소년 역시 숙식을 해결할 수 있고, 지낼 만한 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가출청소년의 숙박형태는 업소에 취직해서 지내기도 하지만, 여관이나 여인숙에서 남녀 혼숙으로 지내거나 동거를 하기도 하며, 새벽까지 공원이나 밤거리를 방황하거나 락카페, 노래방, 비디오방에서 놀다가 노숙을 하거나 연립주택이나 목욕탕의 복도, 화장실, 지하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의 추한 모습 속에 끼어서 퇴폐 향락산업의 이용자인 동시에 공급자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설령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쏠아지는 부모의 비난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또는 가족으로 벗어났다는 홀가분함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떠도는 생활을 하게 된다. 가출했다가 부모나 경찰에 의해 강제로 귀가한 청소년은 집이 갑갑하여 재가출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처음 가출을 결정하고 시도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

변 가출하기는 훨씬 쉬워지고, 죄책감 없이 거리낌 없이 가출이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생활은 청소년비행의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퇴폐 향락산업에 젖은 황금만능주의 및 도덕 불감증의 팽배를 가져온다는 점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3. 청소년 가출의 원인

청소년가출은 개인의 기대 목표와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및 수단간의 괴리가 클 때 발생된다(엄명용,1995). 다시 말하면 개인적 요소와 개인을 둘러싼 환경 요소 예를 들면, 가정에 대한 불만, 학교생활 부적응, 또래관계 문제, 유해환경 문제등 한 가지 이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가출을 가출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단순충동 가출과 상습 가출로 나누어 가출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YMCA,1995).

단순충동 가출은 시험지옥과 부모의 간섭으로부터의 도피가 주된 원인이고, 불량 친구의 선동으로 가출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가출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하나가 되어버린 상습 가출은 앞서 여러 요인이 중복적으로 얹혀 있는 경우가 많다.

가출의 원인은 가출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서도 정리할 수 있다.

정신병리학적 시각에서는 개인적 특성에서 가출의 원인을 찾는 데, 충동성이 강하고, 신경증적 증세를 보이며, 심한 자기애적 인격장애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나동석·이용교,1991). 한편 상황적 문제의 결과로 가출을 설명하려는 상황적 접근에서는 개인의 특성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으나 학교나 또래 집단, 가족, 사회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가출이 발생된다고 본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면 청소년가출은 청소년과 주변 환경

의 상호작용의 결과의 산물로 보는 생태학적 접근이 보다 현실적인 현상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가출의 원인을 청소년 개인의 충동통제력 부족, 학습장애등으로 볼 수 있지만, 이외에도 가정환경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가족간의 응집성이 낮아 가족간의 유대감이 약해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가족으로의 구심력을 약화시키게 되며,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애착의 끈이 형성되어 있지 못해 가출을 하게 된다고 본다. 이 외에도 가족의 규칙이 너무 경직되어 융통성이 없을 경우, 가족내 규칙이라는 것이 없어 가족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거나 일관성 없게 규칙이 적용될 때, 청소년 자녀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부부간의 갈등, 형제간의 불화, 부모의 자녀 차별, 부모의 무관심과 과잉간섭 역시 청소년의 가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가족의 빈곤 역시 가출을 유발하는 주 요인이다. 그러나 빈곤 자체보다 빈곤 생활에서 면할 수 없는 양친의 무기력, 음주벽, 생활상의 무질서 등 빈곤에 의하여 2차적으로 파생되는 방임과 갈등에 의하여 청소년의 가출을 유도한다고 본다. 물질적 빈곤 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의 기회 및 지위의 상향 이동의 기회상실 등 각종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의 빈곤을 동시에 의미하며 개인의 성취동기, 열망수준과 자아실현 등 심리적 차원에 있어서의 박탈과 문화적 가치로부터의 소외 역시 청소년가출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표갑수, 1993).

청소년가출의 또 다른 환경 요인은 학교환경이다. 친한 친구가 없이 외톨이인 경우, 학업성적에서 오는 상대적 열등감이나 교사들로부터의 낙인, 입시와 성적에 대한 중압감, 불량교우와의 관

계, 불량써클 가입등이 청소년가출과 관련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청소년들의 학교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지 못하고 불량친구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 용기를 과시하기 위해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두 요인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정과 학교로부터 밀어내는, 벗어나게 하는 요인인데 반해, 가출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나 가정을 포기하고 문제행동을 더 오래 지속시키고, 안주하게 하는 요인으로서는 사회적 환경 요인을 들 수 있다. 사회환경 요인으로 유해환경의 노출, 매스미디어의 무분별한 정보제공 등을 들 수 있다. 김문조(1992)에 의하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자리잡은 유해환경의 접촉 기회가 증가되면 처음에는 낯선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되지만, 점차 불안이 감소되고, 친숙해지면서 유해환경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까지 자리잡고 있는 단란주점, 락카페, 성인오락실등 유해업소 업주는 가출청소년들이 먹고 잠잘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부합되어 이들을 고용함으로써 가출을 더 장기화시킨다.

4.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및 프로그램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부적응,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압력, 가족간의 갈등과 소외, 또래의 선동 등으로 인해 청소년 가출이 급증하고 있다. 가출은 당사자인 개인은 물론, 가족, 학교,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어렵다. 특히, 유해업소의 무차별적인 청소년 유인은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지속적 대책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한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나 ‘나눔의 집’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는 홍보되어 있지 못하며, 일시적인 보호기관이므로 장기간의 보호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지원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능한한 가출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회 및 가정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모델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단지 가출청소년만을 보호, 수용하는 시설은 적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이 다수 포함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시설의 설립연도, 조직구성, 취지 / 현재 잠정적 평가, 위치, 시설의 대지, 건평, 구비된 시설, 설비, 필요로 하는 설비, 청소년/학생 구성(전체 인원, 성별 분포, 지역별 분포), 학교 졸업 후의 개인과 수용 시설과의 연계, 예산, 담당 교사 또는 봉사자의 근무시간/수당, 프로그램 내용 /

과정과 운영상의 문제점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각 기관 별 이러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였다.

1)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청소년쉼터

청소년문제에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청소년의 치유와 성장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가정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눔의 집 청소년쉼터는 외국의 사례(미국의 group home)를 모델로 삼아 1995년 5월 6일 개소되었다.

① 시설의 형식

청소년 쉼터는 이용 시설이 아닌 수용 시설로서 6-12명 정도의 클라이언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집단 가정의 모형을 취하고 있다. 기존의 대규모 시설은 다소 폐쇄적이고, 프로그램이 획일화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가출청소년 각 개개인이 갖는 문제의 유형과 심각성의 다양성을 고려해 볼 때, 소집단의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소규모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② 쉼터의 이용대상

쉼터의 이용대상은 각각 차이가 있다. 대상자 범위는 보호대상 연령이 14-17세인 여학생으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질환이 없는 청소년이다. 지역 대상 프로그램은 14-17세인 남·여 청소년이며, 전화상담, 면접상담 대상은 초등학교 이상 20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청소년들의 비행 및 가출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부모 및 교사 등 관련인이다. 대상자 선정은 각 중학교, 청소년 상담실 및 청소년 관련기관, 사회복지 전문요원, 각 경찰서와 서울 지역 공부방 연합회, 천주교 도시빈민 협의회등과 의뢰 체계를 확립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청소년을 확보한다.

③ 활동내용

쉼터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의 문제해결과 가출청소년을 비롯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증진이라는 목적을 위해 연계적으로 수행되어지고 있다.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쉼터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활동을 펴고 있다. 일단 쉼터에 입소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의식주,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 가출청소년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치료중심적인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 때, 일시 보호기간은 3개월을 상한선으로 하되, 그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가출청소년의 개인적 상황, 부모의 의견과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1-2개월 연장되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교육문화 활동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집단적 경험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비행을 미연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집단치료 프로그램으로 ‘푸른 꿈 만들기’가 있다(부록참고). 이것은 비행 및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주일간의 집단치료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열린 교실’은 빈곤 지역 청소년들에게 입시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갖춘 개방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잠재된 능력을 계발시키고자 한다.

이 외에도 지역내에서 청소년문제에 관련이 있거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지원 협력체계를 조성하여 비행 청소년에 대한 예방사업은 물론 쉼터 내 보호의뢰 및 보호활동, 퇴소 후 사후지도의 협조관계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입체적 관계망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⑤ 운영상의 문제

나눔의 집을 운영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다른 어떤 전문기관으로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일이 어렵다.

- 내부의 규율과 원칙 적용상의 문제 역시 어렵다. 자유롭게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했던 가출청소년은 나눔의 집의 보호활동 내규를 견디어 내기 힘들어서 이런 곳에 오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규칙적인 상담과 보호생활등에서의 프로그램을 시도조차 해 볼 수 없는 실정이며, 주 대상이 탈출형 가출이나 초기 가출로 유흥가나 비행으로 심하게 빠지기 전에 비교적 건강한 아이들만이 오게 된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 상담문화에 생소한 부모와 자녀간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 단기 보호기간(3월- 6개월) 동안 이들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2) 서울 YMCA 청소년 쉼터

서울 YMCA에서는 1975년 부터 1984년 까지 남대문 근처에서 가출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했다. 1970년대에는 생존과 성공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선 가출청소년이 많았던 반면, 1980년대는 자금회전율이 높은 향락업소에 돈을 투자한 줄부들이 청소년을 유인하는 경우가 흔했고, 1988, 89년은 유난히 인신매매, 매매음, 실종, 가출, 향락문화 등의 문제가 떠들석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 청소년 상담실에도 점차 미성년자를 고용해 접대 행위를 시키는 업소에 대한 신고전화,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상담전화, 가출한 아이를 1년 정도 수용해 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문의전화 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서울 YMCA에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1, 2차의 조사와 두 차례의 심포지움을 가졌으며, 그 결과 가출청소년을 돕는 청소년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다. 사업계획안 마련, 실무자 구성, 장소 확보등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친 후 1992년 10월 28일에는 청소년쉼터를 개설하게 되었다.

청소년쉼터의 구체적인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을 막고 가정, 학교,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으로써 청소년비행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가출청소년과 지역청소년이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협동과 지지의 청소년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격려한다.

-‘청소년의 친구들’을 형성하여 가출청소년, 비행청소년, 학교청소년, 교사, 학부모, 정책담당자, 청소년지도자가 서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이 기획, 참여, 평가하는 자율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청소년활동의 모델로 보급한다.

① 보호활동

- 보호대상 :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가출 남자 청소년
- 보호기간 : 5일을 원칙으로 하나, 사례별로 융통성을 부여함
- 프로그램 :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심리검사등
- 이용 청소년 수 : 연 3,984명

② 사업수행 방법

서울 YMCA센터에서는 일시보호사업과 가출예방사업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사업	구분	내용
일시보호사업	일시보호서비스	무료숙소제공, 의뢰서비스제공, 교통비 지급 등
	가출상담서비스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심리검사, 의뢰활동, 사후지도상담(FOLLOW UP)등
	교육문화활동	진로교육, 정서교육, 영화감상, 시청각 교육, 공동체놀이, 견학관람, 특별활동(등산) 등
가출예방사업	일반상담서비스	면접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교육훈련사업	청소년: 청소년위탁교육, 또래상담자교육, 캠프 학부모: 부모교육 지도자: 자원봉사자 교육, 실습생교육
	연구조사사업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청소년문제, 문화, 환경, 정책에 대한 연구조사
	홍보출판사업	언론매체, 사회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에 서신 및 방문 홍보활동 사업보고서, 연구조사 자료집, 사례집 등 출판사업

③ 청소년쉼터 프로그램

이 곳에서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가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또래상담자 프로그램은 서울 청소년지도육성회 ‘친구상담원’

활동과 함께 서울 YMCA 청소년쉼터가 고민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실무자 회의를 통해 청소년 서로간의 경쟁, 청소년문화의 지나친 분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하나의 활동이 또래상담자 교육이다.

· 학교청소년 위탁프로그램은 청소년쉼터에 오는 청소년들 중에는 학교를 중퇴하거나 자퇴를 한 청소년이 많고, 동교거부증이 가출로까지 발전하기 때문에 학교청소년을 돕는 활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교육통계연감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중퇴자는 1990년 75,043명(1.6%), 1993년 68,729명(1.5%), 1994년 61,332명(1.3%)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교에서 학교를 나오기 싫어하거나, 한 두번 가출을 경험한 아이들, 그리고 비교적 무거운 징계를 받은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 기간 중 청소년쉼터에 와서 4-5일 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활동이다.

④ 운영상의 문제점

청소년가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시설 운영상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는 점을 시사받는다. 노숙하거나 유해업소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쉼터이용 청소년이 감소하였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청소년쉼터에 대한 홍보 부족, 예를 들면, 위치나 전화번호, 이용상의 비용, 시간, 최대 체류기간, 대상에 대한 무지 때문에 쉼터이용 청소년이 감소되었을 수 있다.

개설 초기에 청소년쉼터는 건평 156평 규모에 7명의 인원이 담당하였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건평 60평의 건물에서 총 5명이 일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안정적 예산 마련이 어려운 다른 청소년쉼터나 나눔의 집 등에 비하면 좋은 편이지만, 실무자 수가 부족하고 처우 역시 열악한 편이다. 5명의 실무자가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어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부지원 시범운영체라는 점에서 청소년을 돕는 새로운 모델의 형성과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청소년쉼터 등 가출청소년을 돕는 시설 개소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해도, 언제까지 계속될 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독자적인 운영재원 마련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운 과제이다.

가출청소년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가출 청소년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도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특정 기관에서 이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데도 가출청소년을 돕는 각 기관 및 시설간의 교류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3) 살레시오 나눔의 집

갈 곳 없는 청소년, 특히 결손가정 청소년들이나 가출청소년들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집 형태를 천주교 살레시오 수도회에서 1985년에 철산동 나눔의

집이라고 하여 최초로 설립하였다. 현재는 서울과 인근 지역 8곳으로 늘어났다. 여자 청소년은 구로동, 오목교에, 남자 청소년은 성북동, 신길동, 신월동, 부천, 안양, 철산 등의 나눔의 집에 수용되며, 연령상 제한은 없다.

① 보호활동

- 보호대상 : 결손가정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 성별, 연령에 따른 제한은 없음
- 보호기간 : 가정이 돌아갈 만한 상황이 될 때 까지
- 수용 청소년 수 : 전체 100여명 정도이며, 초등학생이 44%, 중학생 40%, 고등학생 16%를 차지하고 있음

② 운영내용

살레시오 나눔의 집은 돈 보스코 성인(聖人)의 교육이념에 따라 이들 청소년들이 상주봉사자 1-2명과 함께 일반 가정 분위기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공동체이다. 아동·청소년은 대개 아동상담소나 아동 주위의 친척이나 이웃들을 통해 의뢰되며, 부모에게 학대를 받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킨다. 입소된 아동·청소년들은 일반 정규과정의 학교교육을 받으며,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기술학교에 입학 하거나 부모나 친척에게로 되돌아 간다.

③ 운영상의 문제점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봉사등 도움이 있긴

하나, 입소된 아동이나 청소년의 학비나 용돈 등을 나눔의 집에서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 한 가정의 보호자 역할을 1인-2인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어려운 면이므로, 시설 확보나 이전, 확장등을 계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남매가 함께 입소될 때를 고려하여 여자 아이들을 수용하는 나눔의 집이 있긴 하나, 남자 아이들을 주로 수용하기 때문에 여아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4) 서울시립 동부아동상담소

이 상담소는 서울시에서 샬트로 성바오로 수녀회 서울관구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1988년에 개관하게 되었다. 아동복지 행정의 제일선 전문 치료기관으로서 문제행동 아동(비행, 가출, 도벽, 허언, 환각제 사용, 학교부적응 등)의 일시 보호치료와 정서장애 아동(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을 통원 치료하여 아동의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임상적 치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보호활동

- 보호대상 : 만 3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
- 프로그램 :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모교육, 심리검사등
- 이용 비용 : 무료

② 청소년 프로그램

- 개별상담

문제행동으로 개별치료를 원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주 1-2회 상담을 하며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유출시킴으로써 사고와 행동양식에 변화를 유도, 자기이해와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건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 일시보호치료

문제를 지속·심화시키는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문제에 대한 다각적 접근 즉,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심성계발, 부모상담을 함으로써 아동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아정체감 확립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준다.

주 대상은 도벽, 가출, 환각제 흡입을 하는 남자 아동과 남자 청소년이다.

- 놀꾸른 교실

개별 또는 집단적 문제로 인하여 처벌 중이거나 유보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경험을 통하여 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모색하며, 나아가 학교 및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5일(월-금)간의 단기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③ 운영상의 문제점

전액 관의 시설, 인적 자원,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어 타 시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봉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비해 치우는 열악한 형편이다. 인적, 재정 자원이 부족하여 한 학급 내에 학습능력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데서 오는 문제도 있고, 유사한 선도 기관간의 협조 및 행정 기관의 협조를 얻기 힘들어 아동 및 청소년 지도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5) 영산성지학교(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 각종학교)

영산성지학교는 1974년 고등공민학교(중, 고등학교과정)로 출발하여 1983년 고등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로 인가받았다. 인문계 보통과를 수학하는 남·여공학 학교로서 설립 주체는 재단법인 원불교이다.

1986년 농촌 지역 학생 수의 감소로 한때 폐교를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학교를 맡고 있던 원불교 김현 교무의 제안으로 학생 중심의 인성교육을 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후 그 대안을 영국의 서머힐 스쿨에서 보고된 여러 성과와 방편에서 찾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여러 방법들을 개발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해 왔다.

각 학년당 1학급씩 총 3학급이며, 학급 정원은 20명선이고 현재 학생 수는 총 53명, 교사는 모두 10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5.3명이다. 전남 영광읍에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기숙학교로 학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였으며 대체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출신 학생이 75%에 이른다. 1996년도 2월까지 졸업생 수는 총 215명이다.

학생의 입학 동기는 일반학교에의 부적응, 자율과 열린 교육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온 경우가 각각 반반 정도이다.

학교의 특징과 시설, 교직원 및 학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현황

시설 명	교 지	체육 장	실습 지	교 실	화장 실	기숙 사	도 막	탁구 장
규 모	8,287 m ²	5,019 m ²	3,329 m ²	8 실	2동	2동 15실	2동	1동

② 교직원 현황

구 분	교 장	교 사	계
남	1	3	4
여		6	6
계	1	9	10

③ 학생현황

- 인원

성 별	96학년도 입학지원 자수	현 재 인 원			
		1학년	2학년	3학년	총 원
남	145	19	17	7	43
여	54	4	4	2	10
계	199	23	21	9	53

- 출신지역별 학생 수

지 역	서울	부산	전남	광주	경기	전북	충북
학생수	16(4)	8(2)	8(1)	5(1)	3(1)	3	2
지 역	경남	인천	대구	경북	대전	충남	해외
학생수	2	1	1	1	1	1	1(1)

* ()는 여학생으로 본수에 포함됨

④ 학생 유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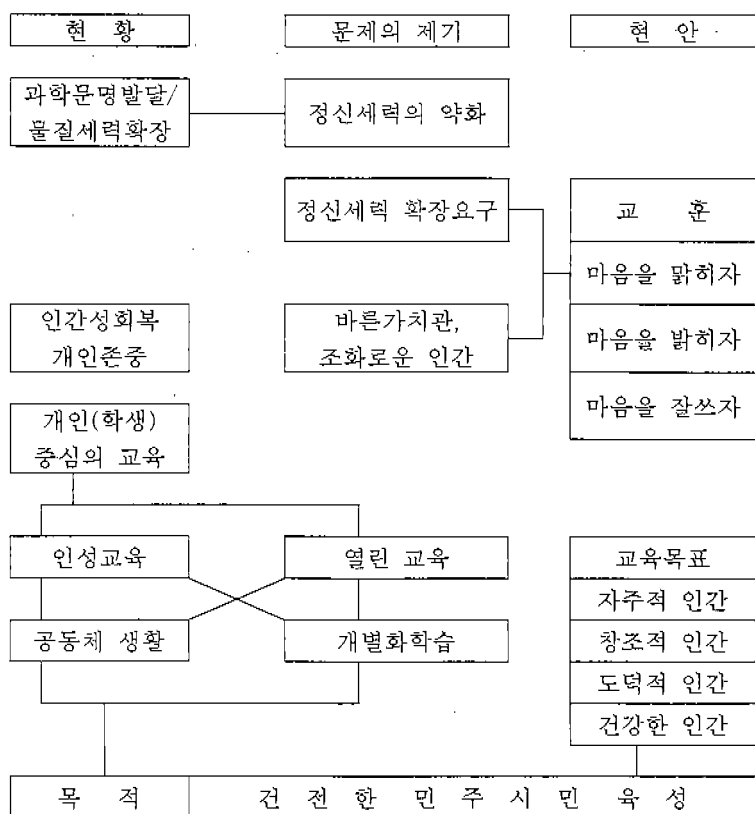
유형별 구분		학년별 학생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지체 입학 정도	정 상	6	4	3	13
	1년	9	10	2	21
	2년	4	5	2	11
	3년이상	4	2	2	8
	계	23	21	9	53
본교 입학 형태	신입생	23	4	4	31
	전(편)입학		17	5	22
	계	23	21	9	53
입학전	정상진학	6	4	3	13
	퇴학	4	2	1	7
	자퇴	9	5	2	16
	부적응(성적등)	4	10	3	17
보호관찰중 또는 경력자		5	5	4	14

⑤ 학교교육의 이념 및 특징

영산성지학교에서는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방침을 정하며, 소외된 청소년을 주인으로 세우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이념은 아래 그림으로 요약된다.

< 그림 1 > 교 육 이 념



영산성지학교가 다른 학교와 비해 학교교육의 특징이라고 내세우는 면은 다음과 같다.

◎ 인성중심의 교육 - 가정을 대신하는 학교

학생 스스로를 인격의 주체로 세우고자 여러 측면에서 면밀히 배려를 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거의 대학생 수준의 자율을 허용하여 두발 복장 흡연 등은 자율에 맡긴다.

교사·학생이 동숙하며 상시 상담체제를 갖추고 전인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의 모든 과정은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놀이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교 육 활 동	실 천 내 용
자율성 최대 존중	두발, 복장, 흡연, 의사결정 등 자율화
상시 상담체제	시간, 장소 구애없는 상담활동
자력재정원칙	유정관, 도자기 공장 운영(학생을 수익대상으로 보지 않고 목적적 존재로 세우기 위함)

학교 경영은 자력 재정의 원칙 아래 닭을 키워 자연란을 생산하고, 전통도자기 공장(분청자기 재현)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학교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다.

◎ 학생 중심의 학습 - 무한한 잠재력의 개발

이 학교에서는 본인이 공부하려는 마음을 스스로 갖추기까지 수업부담을 최소화한다. 수업시간 중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자유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차를 고려한 사실상의 복식 수업을 병행할 뿐 아니라 교실 수업 대신 체험학습을 희망할 경우 일정 범위내의 시간을 출석으로 인정해주고, 정규 교실수업은 대체로 오전 중에 마무리 짓고 오후 시간은 실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정 시간을 최소 단위로 운영한다.

능력별 분반 이동 수업은 금년의 경우 정규 수업 시간수 내에서 영어·수학과목에 한하여 학년에 관계없이 A, B, C 3개 분반으로 편성하였는데 각 학년 4단위중 절반인 2단위 x 2과목, 총 4단위를 분반에 따라 이동하여 수업하게 된다. 매주 월, 화, 수, 목 4일의 3교시는 분반 수업이며 평가는 각 분반별로 하되 가중치를 곱하여 정기고사에 시간수 단위 배정 비율(50%)만큼 반영한다.

방과 후 활동은 여가활동과 자율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 여가활동은 풍물반, 컴퓨터반, 운전면허반, 농구반등 자신의 취향에 따라 보낼 수 있고, 자율학습은 자율적으로 참가한 학생에 한하여 학과 보충·심화 학습을 밀도 깊게 지도하고 있다.

노작활동은 먼저 노작활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부터 작업 종류와 시간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학생의 선택에 맡기고 매일 아침 4명 이내에서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접수 받아 계사, 도자기공장, 유기농 관련 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작업 시간을 누산하여 개인 생활기록의 자료로서 활용한다. 물론 작업

이 진행되는 동안의 수업은 출석으로 본다.

교 육 활 동	실 천 내 용
소규모 학급	학급당 20명
수업부담의 최소화	수업 중 자유활동 부분 허용
능력별 이동식 분반수업	4시간/주, 영어·수학과목 실시 중
다양한 과외 활동 지원	풍물, HAM 등 체육, 문화, 취미 활동
방과후 자율학습	희망자 개별보충·심화학습 실시
노작·체험학습	희망자에 한함; 출석 인정

◎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 - 스스로 깨닫는 교육

직접 체험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은 스스로의 나약함과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 강하고 주체적 자세를 갖추게 된다. 심성을 계발하기 위한 훈련, 등산, 해양훈련 등을 통해 목표달성을 위한 또래끼리의 협조체제를 키울 수 있으며, 성취동기를 맛봄으로써 자신감 함양에 도움이 된다.

교육활동	횟 수	계획시기	기 간	비 고
- 신입생 훈련	1회	2월중	3일	
- 심성계발훈련	1회	3월중	3일	야영결합
- 야영활동	1회	9월중	2일	
- 지리산 종주등반	1회	5월중	5일	극기훈련
- 해양훈련	1회	7월중	2일	
- 현장학습	8회	매월	8일	
13회		23일		

◎ 민주시민 교육 - 모두가 주인인 학교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청소, 설거지, 빨래, 식당당번, 간식만들기 등을 스스로 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감사와 먹거리 입을거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대체로 3학년생이 맡는 사생장의 주재로 자발적인 기숙사회의를 열고 이를 통하여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규율을 스스로 만들고 점검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가정·사회생활에서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규제나 간섭의 의미를 알게 되고, 생활과정을 잘 계획할 줄 아는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바탕을 기르게 된다.

매주 1차례 전체 회의시간을 갖는데, 여기서 교사와 학생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 물론 학생들이 원할 경우 학생들만의 자리가 되기도 한다. 이 회의에서는 학교내 거의 모든 일들이 논의·결정되며 잘잘못을 가리는 사법적 기능까지 포함한다.

상업화된 대중문화의 수동적 강요로부터 청소년들을 주인으로

세우고, 문화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창조하는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 매년 10월 중 정기적으로 소리모아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리는 이 행사의 모든 과정을 아이들 스스로 하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보조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 내용은 연극, 공트, 시화전, 춤, 노래, 장기자랑,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하게 구성되며, 이 행사 때는 학부모와 마을 주민 그리고 사회에 진출한 선배 뿐 아니라, 인근의 학생들까지 초청하여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는 종합 축제의 성격을 띤다.

◎ 타인, 지역 사회와 조화 - 더불어 함께 사는 교육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의 소속감을 갖게 하며, 동시에 지역주민의 이들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매월 1회 이상씩 마을 도로변 오물줍기, 하천변 정

교육활동	횟 수	시 기	기 간	비 고
단체봉사 활동	8회	매월	8일	
환경보호 활동	6회	격월	6일	
유기농장 설치 운영	유기농 지도로 지역사회와 연대, 지역소득 증대와 환경 보호 선도			
도자기 공장 운영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세계화 지향			

화사업 등 단체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농번기에는 노작·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들로 하여금 노력 봉사할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주민 속의 당당한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⑥ 현안과제 및 운영상의 문제점

자율적이고 민주적 방침으로 인성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영지학교의 당면 과제는 적지 않다. 교육부의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기숙사 확보 문제는 물론, 지속적인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러한 종류의 대안학교가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비록 학교 소재지가 전라남도이지만 서울, 경남 등의 지역에서도 입학을 바라는 학생이 많다는 점에, 지역사회에 국한된 학교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학교의 최대 수용인원은 100-150명 까지 가능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만한 기숙사가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임금이 월 평균 30만원에 불과하고, 학생들과 함께 숙식을 해야 한다는 점 등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은 아무리 뜻이 있는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강한 교사라 할지라도 이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생활인으로서의 현실을 무시하는 바이다. 이렇듯 이 학교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급한 기숙사 증설

○ 운영현황

-학교가 운영 중인 기숙사는 조립식 건물 2동으로, 총 10실로

각 실당 4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 연한이 낮고 쾌적하고 안정된 분위기 조성이 어려움

- 침실 부족으로 타 기관의 숙소(원불교 영산훈련원의 정진관) 3실을 임대하여 여학생용 기숙사로 사용 중임

◦ 증설의 필요성

- 성지교에 입학할 희망하는 다수의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하여 교육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
- 대체로 정규 학교교육에 부적응한 학생(퇴학, 성적부적응, 보호관찰 중 또는 경험자)을 대상으로 교화와 선도를 목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므로 숙식 시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함
- 학생의 대부분이 타 시·도 출신임(전체 53명 중 45명이 타 시·도 출신임)
- 학교 소재지가 농촌지역으로 학생의 자취 등 숙식여건 불비

◦ 지원요청 규모

- 1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1동 규모

◎ 여가선용 시설의 확보

◦ 시설의 필요성

- 전인교육을 위하여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여건 확보 시급
- 전인교육을 위하여 자신의 잠재된 무한한 바탕을 확인하고

제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제공

○지원요청 시설 및 규모

-학생들이 어학을 실습할 수 있는 공간 2곳, 예체능실 4곳,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이 필요하며, 체육 시설 및 다양한
설비 등 부족

◎ 교사 근무여건 개선

○실태

-교육적 열의와 봉사심을 가진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근무
-자력 재정원칙에 따라 부여되는 기본급을 지급
-교사의 이동이 잦음
-노하우 축적과 안정적 교육 혜택 수혜에 어려움 따름
-교사의 연수, 자기계발 등 장기적 인적 자원 양성 어려움

○지원요청 내용

-교사연수(일반 연수, 1정 연수, 청소년지도 관련 연수) 기회
제공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 교류관계 확대
-풍부한 경험과 특별한 신념을 가진 우수한 교사의 소신있
는 근무를 위한 여건 확보

◎ 정책적 제도적 지원 절실

○실태

-차별화된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 지원 부족

-현재의 본교 교육을 종교적 교화사업으로 치부하는 근시안
적 시각

-행정적, 제도적 배려 전무

-인성 중심 열린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교육 이념 실현의 어
려움

◦ 지원요청내용

-체계적, 과학적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수 필요

-인성중심 교육으로 차별화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 절실

-능력별 개별화 교육의 최적매체인 컴퓨터, 인터넷 등 첨단
도구의 확보 절실

6) 양업고등학교 (가칭)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매괴여자 중·상업고등학교, 충주에
소재한 특수학교인 성심학교와 성모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
주 카톨릭학원에서는 소위 문제학생을 위한 정규 고등학교 설립
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3월부터 개교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 학교는 가칭
양업고등학교로,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에 소재한 산동
초등학교가 폐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이를 교육부와 충청북
도 교육구청으로부터 매입하여 설립하고자 한다.

산동 초등학교는 4,468.53평의 대지에 건평 388.57평으로 13개 교실이 있다. 산동초등학교 건물 보수비는 2억원, 산동학교 토지 값 4억원, 기숙사 토지 매입비는 4억원, 기숙사 신축비 8억원, 책 결상, 교재, 부교재, 셔틀버스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여 예산 확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행으로 인해 퇴학당한 학생 중 다시 학교에 다니기를 희망한 학생들은 충청북도에만 220명이 집계되고 있다. 이들을 수용할 만한 학교가 부재하므로 남녀공학 정규고등학교로서 1학급당 30명 정원에 4학급을 편성하여 기존학교와는 달리 각급학교에서 자퇴, 퇴학 직전의 상태에 있는 학생과 이미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 중 정규고교에 입학 자격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한다.

학교의 특성상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해 가정에서 등·하교하지 아니하고 학교 내에 기숙사를 두어 교원과 학생들이 숙식을 같이 하며, 학교교육과 인성교육을 병행하고자 한다.

양업고등학교 교원은 학생들의 특성상 특히 사명감과 희생심에 투철한 전문교원이 요구되는데, 기존의 평범한 일반학교 교사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감이 크고, 효율적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되기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천주교회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주축으로 하고, 일부는 일반 교원들로 구성하고자 한다.

학교운영의 기본 방향은 영산성지교와 미국 뉴욕주의 특수교인 프리덤 빌리지를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한다.

< 참고사항 >

미국 뉴욕주 레이크몬트시에 있는 프리덤 빌리지(Freedom Village)는 문제 청소년들에게 제2의 삶을 찾아주는 특수학교이다. 19만평의 광활한 대지 위에 기숙사와 교회, 교사동이 들어선 이 학교에서는 현재 250명의 청소년들이 '교화'를 받고 있다. 이 학교는 한국 천주교 청주교구청이 내년 중 충북 청원군에 세울 예정인 '문제학생 선도교'와 설립 목적등에서 궤를 같이 한다.

남녀별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매일 상오 6시에 기상, 침대와 주변 정돈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식사후에는 식당, 화장실, 마굿간등 담당 구역을 청소한 뒤 8시부터 예배를 본다. 9시부터 하오 3시까지의 수업 시간에는 영어 수학과 일반교과 과정은 물론 인쇄, 전기, 목공, 자동차수리 등 직업 기술을 배운다. 음악과 미술, 그리고 승마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도 즐길 수 있다.

이 학교에서는 그러나 매시간 '고참' 학생이 인원 과락을 하는 것이 일반학교와 다르다. 교사들은 기숙사등의 청소상태와 학생들의 생활태도를 일일이 점검한다. 단체로 입는 교복등 복장이 불량하거나 숙제를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벌을 준다. 아무리 가벼운 욕을 해도 제재가 가해진다.

가장 흔한 벌은 15kg 무게의 통나무를 들고 운동장을 도는 것이다. 보통 1시간 정도 벌을 받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과 밤 등 하루 두차례씩 보름 이상을 뛰어야 한다. 이 학교는 부지가 워낙 넓어 담장을 세울 수도 없다. 그래서 무전기를 든 경비원 2명이 안내겸 수위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각자 자유시간을 즐기다 하오 8시부터

요일별로 인성교육, 사회적응 훈련등을 받은 뒤 밤 10시 잠자리에 든다. 밤에는 고참 학생이 불침번도 서고, 외출 외박이 불가능하며, 군대생활과 유사하다.

이렇게 다소 엄하게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유순하게 보이지만 학생들의 과거는 생각보다 훨씬 어둡고, 13세에서 21세 사이인 이들의 95%는 마리화나, 코카인, 코카인 등 각종 마약에 빠졌던 경험이 있고 반 이상은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 90%는 사회와 가정에서 성적·육체적 학대를 받았으며 60%는 폭력, 강도, 강간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81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일반 시민, 기업체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학비등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이다. 학생 1인당 최소 4,300달러가 소요되는 등 1년 예산이 250만달러를 넘지만 학부모와 학생에게 일체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지원도 전혀 없으나, 독지가들의 기부금만으로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입학을 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일단 입학한 뒤 6개월 동안 사회와 완전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한다. 부모와의 면회만 허용될 뿐 지난날의 불량세계와 담을 쌓고 새 사람이 될 때까지 친구등 어떤 사람과도 접촉이 금지된다. 이렇게 6개월을 견뎌 후, 주말에 한해 부모와 외출이 가능하고 제한된 교외활동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입학 때 치르는 학력평가 시험을 통해 각자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는다. 교육과정은 최소 1년이지만 학생들은 평균 2년 정도 머문다. 이 학교는 뉴욕주 공인 전인 교육기관으로 인

정받아 학생들은 자격증과 졸업장을 딸 수 있다.

수업은 정규교사 자격증이 있는 12명의 교사들이 과목별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워낙 천차만별이라 등급별로 나누어 수업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자습서 위주로 공부하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만 교사에게서 1대1로 배운다. 직업기술 교육은 일반 학교의 수업처럼 진행된다.

5. 「중간의 집」 설치방안 관련 면접 및 설문 조사 결과

1) 조사방법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의 효과나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간의 집 설립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실태 파악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중간의 집 설치방안 관련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한 작업의 일부로 가출청소년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총 24문항이며, 응답자의 다양한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자유응답과 복수응답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 43부 중 부실 기재된 1부를 제외한 41부의 반응을 참고하였다.

2) 가출청소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1명 중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9명으로 대다수의 학생이 가출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학교 자체가 기존의 학교에서 부적응을 보인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으리라 본다.

응답자 41명 중 31명은 남학생이고, 여학생은 10명이었다. 이들의 연령대는 17세 부터 22세로, 평균 18.575세이다. 가족의 월 평균소득에 대해 모르겠다는 학생은 전체 41명 중 16명이며, 월 평균소득을 아는 25명 중 100만원 미만 4명, 100-150만원 미만 3명, 150-200만원 미만 6명, 200만원 이상 1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친구 중 소위 말하는 문제청소년이 많다는 경우는 전체 41명 중 18명, 보통인 경우 역시 18명이며, 적다고 응답한 학생은 4명, 없다는 경우는 1명으로, 또래집단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의 대다수가 2, 3명 이상이 함께 집단가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친구의 영향이 청소년가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서울 YMCA, 1996). 또래집단의 문화, 분위기, 가치관 등이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며, 가출에 대한 두려움 혹은 책임감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게 되므로 혼자 가출하는 것보다 더 쉽게 행동할 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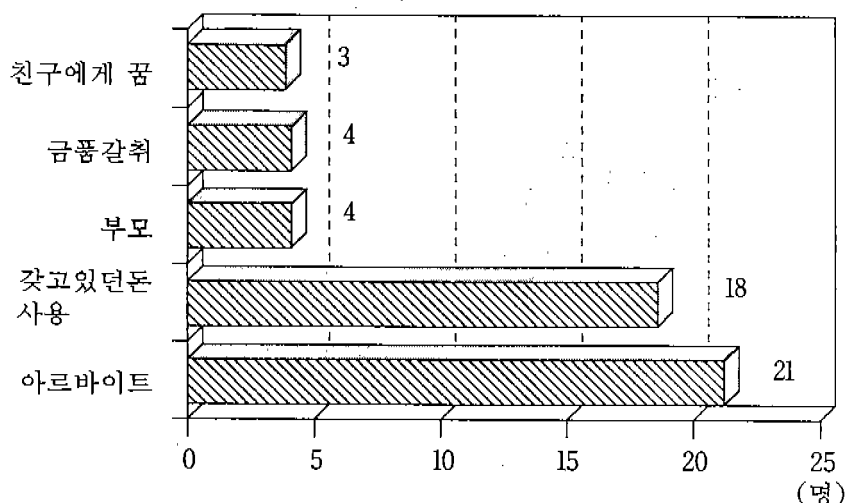
응답자가 현재 학교로 옮기기 전에 다니던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20명, 공업고등학교가 10명, 상업고등학교가 6명, 종합고등학교가 2명, 중학교 2명이었다. 이들이 다녔던 학교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12명), 경남, 경기도등 전국적인 분포를 보였으며, 광역시, 대도시, 군소재지등 다양하였다.

이들이 다니던 학교를 그만 둔 이유로 가출을 포함한 장기결석을 꼽은 학생이 전체 41명 중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출을 하게 되면 학교에도 등교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해 교사나 학교의 강요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의 12명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학교의 강요에 의해 학교를 그만

두었다고 응답함으로써, 학교교칙을 위반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 퇴학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에 연루된 경우는 10명, 학원폭력 이외의 음주, 약물 등의 문제행동이 이유가 된 경우는 7명으로 나타났다. 교사나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 7명이었다.

가출경험 학생들이 가출한 동안에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경우는 총 41명 중 21명으로 과반수에 해당한다. 가출하기 전에 갖고 있던 돈을 썼다는 경우는 총 41명 중 1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구에게 꾸다거나(3명) 부모에게 타서 쓰는 경우(4명)도 나타났다. 이외에도 금품갈취가 4명, 있는 물건을 내다 판 경우도 2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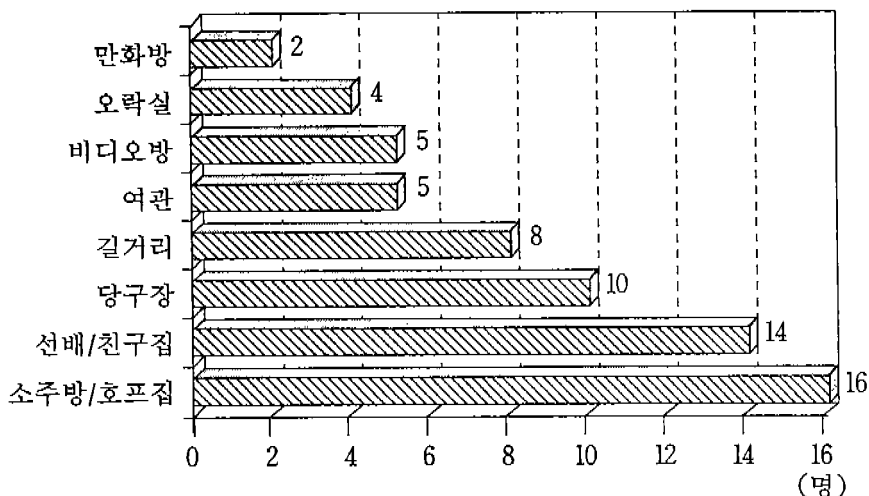
<그림 1> 생활비 조달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이 적지 않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독립에 대한 갈구와 가출 후 용돈 마련, 유흥비 마련 등의 이유 때문으로 보이며,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가출로 이어질 여지가 많다. 미성년인 가출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만한 곳은 정해져 있다고 볼 때, 유해업소에의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려된다.

이들이 가출하여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주방이나 호프집, 단란주점이라고 한 학생이 전체 41명 중 16명, 선배나 친구 집이 14명, 당구장이 10명,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경우가 8명으로 나타났다. 여관, 비디오방은 각각 5명, 오락실 4명, 만화가게 2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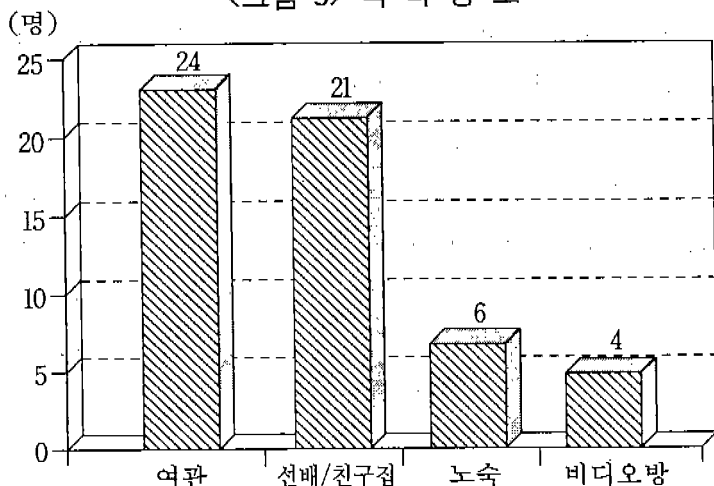
〈그림 2〉 시간보낸 곳



서울 YMCA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가출시 남는 시간을 주로 어디에서 보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친구집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노래방(11.2%), 비디오방(10.5%), 커피전문점(9.5%), 당구장(7.2%), 술집(5.6%), 전자오락실(4.9%), 카페(3.6%), 디스코장(2.6%), 만화가게(2.0%), 주유소(1.3%), 영화관선배나 친구(1.0%)의 순으로 나타났다. YMCA의 조사결과 중 89년에는 친구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영화관, 독서실, 카페, 친척집, 당구장, 다방 순이었는데, 이 결과는 96년과 비교할 때 많은 변화를 보인다. 89년에는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이라는 단어도 그리 익숙지 않았고, 비디오방은 아예 없었던 시기였다. 그리고 커피전문점도 그리 활성화되던 시기는 아니었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적 장소가 생겨나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96년에는 친구집 다음으로 예전에 없던 노래방, 비디오방등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나타났다. 한편, YMCA의 연구결과와 본 조사결과는 유사한 경향을 보인 점은 친구집이나 선배 집에서 보낸다는 비율이 높아, 가출시에 또래집단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YMCA의 연구에 비해 소주방이나 호프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가출청소년의 놀이문화가 향락 및 유희환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부분적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출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 소주방이나 호프집이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가솔하여 잠을 잔 곳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관이 24명으로 가장 많고, 선배나 친구집이 21명, 노숙이 6명, 비디오방이 4명으로 나타났다. 또래집단의 성격 역시 청소년의 가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리나 공원, 지하철에서 잔다는 경우나 요즘 한창 논란이 많은 비디오방에서 잠을 잔다는 경우도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님을 볼 때,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림 3> 숙 박 장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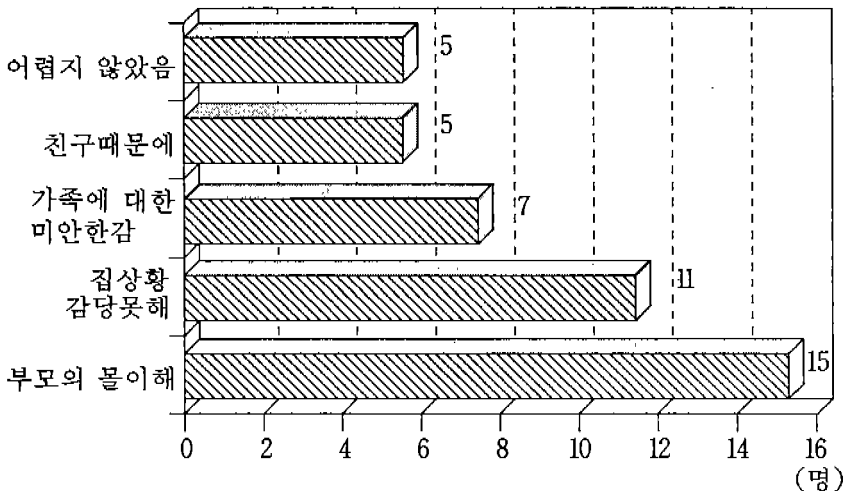
서울 YMCA(1996)의 연구에 의하면, 쉼터가 있을 경우, 69.7%

의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였고, 이용하지 않겠다는 경우는 10.9%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많은 청소년들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않고, 쉬거나 혼자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원하고 있음을 일부 의미한다고 볼 때, 청소년쉼터의 홍보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야 할 필요가 엿보인다. 청소년의 가출 발생을 전무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과 장기 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청소년쉼터에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해야 된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 쉼터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들 청소년을 그나마 관리할 수 있다. 청소년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면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출 후 집에 돌아가기 어려운 점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부모의 불이해를 지적한 사람이 가장 많아 41명 중 15명이었다. 일단 가출을 한 이후 집에 돌아가려 해도 부모가 가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꾸중을 한다거나 문제가 취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집에 다시 들어가기 어렵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반응은 집의 복잡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으로, 11명이 지적했다. 결국 가족간의 불화, 경제적 이유, 폭력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청소년은 집에 대한 부담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해 도피형, 탈출형 가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집의 형편이 청소년 자신이 모두 감당해야 할 바는 아니지만, 지위 부여의 기능을 갖는 가족에 대한 불만, 열린 사회라고 하지만 상향 이동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지각하고, 미래

에 대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의 가족 이탈을 부추기는 듯 하다. 부모나 동생 보기가 미안해서라는 이유를 든 학생도 7명이다. 일단 어떠한 이유에서든 가출을 했지만, 부모나 동생 보기에 미안하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들 청소년을 순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한편, 친구때문이라는 경우는 5명으로 또래 집단의 동조성 가출을 한 것으로 보이며, 또래집단에 대한 의리 또는 압력이 집에 다시 돌아가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혀 어렵지 않았다는 경우가 5명으로 나타남으로써, 습관성, 상습적 가출 역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인다.

〈그림 4〉 귀가 주저 요인



3) 대안학교에 대한 태도 결과

가출청소년을 위한 중간의 집 설치방안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현재 지내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이들의 태도를 알아 보았다.

앞서 살펴본 여러 이유로 학교를 중단한 후, 대안학교로 오기 까지 얼마 동안의 시간 차이가 있었는가를 조사한 결과, 중학교 졸업과 즉시라고 응답한 경우는 4명이고 1-6개월은 10명, 7-12개월은 10명, 13-18개월은 2명, 24개월 이상은 8명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로 오게 된 경위는 부모의 주선이 20명, 친지의 소개가 12명, 신문/잡지/텔레비전에서 7명, 친구의 소개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곳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몸이 아플 때(24명)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외로울 때(16명), 명절 등 특별한 날(12명),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날(6명)에 집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였다.

이 곳에 온 후 부모와의 관계 변화를 알아 본 바, 좋아졌다는 경우는 23명이며, 별 변화없다는 경우는 11명, 잘 모르겠다가 6명, 나빠졌다는 경우는 1명으로 어느 정도의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곳에서의 생활이 긍정적인 점은 전에 다녔던 학교에 비해 자유롭고(23명) 선생으로부터 이해받고(14명)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우고 있어(12명) 흡족해했다. 이 외에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도 있고(8명), 재미있다(7명)고 응답했다. 반면, 불편한 점은 생활이 너무 단조롭다(27명)는 것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람들이 대안학교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불편하고(17명), 일과가 너무 빡빡하며(7명), 시설설비가 부족하다(3명)는 경우도 지적되었다.

이 곳에서 생활하면서 스스로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별 변화가 없다는 경우는 12명,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여 간다는 경우는 4명, 나머지 25명은 긍정적 변화를 지적했다. 가장 많은 청소년(21명)이 지적한 것은 나름대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갈 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경우 11명, 공부할 의욕이 생겼다는 경우도 5명,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경우도 4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 볼 때, 대안학교는 어느 정도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은 이 곳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것을 배우고 싶어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이 언급한 것은 기술 습득(13명)과 운동(10명)이었다. 물론 배우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경우도 8명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비율의 청소년이 무기력을 보인다고거나 미래에 대해 목적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보다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배우자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표했다. 특히 컴퓨터나 악기, 그림등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기를 바랐으며, 사업 방법을 배우기를 희망하는 경우 등은 이들이 직업과 연관된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보인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피난처 내지 보호소 또는 대안학교 등을 설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현재 가출청소년을 보호·수용하는 기관이 직면한 문제와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많은 매스컴과 학계에서 이상적인 학교 모델로 추천받고 있는 성지 대안학교의 교육 방침 및 프로그램등을 제시했으며,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가출에 대한 태도와 대안학교 생활에 대한 의견 조사를 했다.

청소년가출 관련 연구에서 청소년가출은 엄연한 사회적 현실로 존재하고, 가출로 인한 사회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사회적 개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김영지,1994). 또한 가출의 원인과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출 예방 및 감소 대책도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출문제를 다루는 시각은 보호와 통제 위주의 단편적, 한시적 접근이 대부분으로, 실제로 가출청소년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대책이 별로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본 조사대상인 가출청소년의 의견에 의하면, 가출 후 소주방이나 호프집, 단란주점에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선배나 친구 집, 당구장 또는 길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잠자리는 여관에서 주로 해결하고, 선배나 친구집, 노숙을 하거나 비디오방에서 해결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출시의 용돈은 아르바이트로 해결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

며, 갖고 있던 돈을 쓰는 경우도 많았다. 가출 후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꾸중을 한다거나 문제아로 취급하려 하기 때문에 집에 다시 돌아가기가 주저되었다고 했다. 또한 많은 청소년이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기 힘들었다고 했다.

청소년가출 사례 중에는 충동적이고 무모한 경우도 있지만, 집 생각만 하면 앞날이 너무도 암담하고 답답하며, 가정의 긴장적 상황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억압적 가정에서 탈출하여 자유로움과 자아를 찾기 위한 시도로 행해지는 경우도 일부 있다.

그러나 가출생활이 모든 곤궁함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출청소년이 갈 만한 마땅한 곳도 없고, 경제력도 없기 때문에 일단 가정을 벗어나 건전한 생활을 지속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서게 되었다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기존의 가출관련 연구(표갑수,1993 :엄명용,1995: 김향초,1996)에서 제안했듯이, 청소년의 가족이탈을 줄이고, 가출청소년의 재가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공동체 회복방안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가족관계가 소원하거나 지나치게 밀착되어 과잉간섭을 하는 경우와 경제적 빈곤, 문화적 실조등으로 청소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가족의 경우,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가

족을 위해 이를 지지, 보충, 강화할 수 있는 가족복지, 가족치료 사업이 확산되어야 하며, 잠재적 가출청소년 가정을 미리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모와 교사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촉구된다. 청소년과의 대화 방법, 욕구과악 방법, 욕구해소 방법 및 가족내의 역동성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이들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및 집단 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초·중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나 가족상담 및 가정생활 교육원등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학생의 가정과 국가 및 민간이 제공하는 자원을 연결시키는 등의 사회복지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가족기능의 강화와 같은 가출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원론적 방안은 단 시간에 실현될 수 있는 바가 아니며, 청소년가출은 엄연한 사회 현상으로 실재한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가출청소년을 보호·수용하는 시설 관계자와의 면담 및 관련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가출청소년의 재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설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의 가출청소년 보호·수용시설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및 보호시설 이용 및 역할에 대한 바른 정보 제공

어떠한 이유에서 가출을 했든간에 청소년이 일단 가출하면 갈

곳이 막막해진다. 그들은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리고 나면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일부는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카페나 소주방등에 취직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비행에 연루되기 쉽다. 그러므로 가출청소년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극심한 역기능이 존재하는 가정이나 청소년의 욕구를 전혀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가정에서 갈등 속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는 가정이 변화되는 동안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건전한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일이 더더욱 필요하다.

청소년의 가출 발생을 전무하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과 장기 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가출청소년을 보호·수용하는 시설에 접근하기 쉽고 이용이 용이해야 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이용이 보편화되면, 그나마 이들 청소년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나 나눔의 집이 운영되고 있긴 하나, 전국적인 분포를 갖고 있지 못하며, 차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설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가출청소년의 경우 보호·수용시설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이용을 주저하기도 하므로, 이 시설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출청소년 보호·수용시설의 지역 사회에 대한 서비스 전개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복지시설인가에 따라 지역사회 내 설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다. 대체로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부정적이고, 지역사회 내에 보호시설이 설치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불량화될까 우려하여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 내 설치를 거부하는 운동을 펴는 경우도 많다. 지역사회 이기주의의 팽배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데, 가출청소년 보호·수용시설을 비롯한 복지시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청소년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문화적, 공간적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야 하며, 한편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소속감을 키우고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가출청소년 보호·수용시설의 증설 및 시설의 다양화

가출청소년 보호·수용시설은 전국적 분포를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수를 늘려야 할 뿐 아니라 가출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개인적 욕구를 참고하여 시설의 형태를 다양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 가출청소년을 위한 공간, 상습 가출청소년을 위한 공간, 여자 가출청소년을 위한 공간, 도심 유흥가에 있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공간 등 다양한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충동 가출의 경우 일시 보호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쉼터와 같은 기관이 가출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되어 유흥업소 등 유해환경과 접촉을 막고 일시보호와 상담을 통해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상습 가출의 경우 문

제의 원인과 가출청소년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문제 유형에 따라 장기 보호기관, 가족치료 전문상담 기관과 청소년 심리치료 센터, 직업훈련원, 집단 가정 등과 같은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업을 계속하기 원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기 원하거나 복잡한 도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거나 약물문제나 정신적 문제등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어 치료받기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서비스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의 자극으로부터 격리된 농촌도 가능하고, 가출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 유흥가 근처에 설립될 수도 있다.

가출청소년 보호·수용시설의 특성별 명칭 통일

가출청소년 보호·수용시설의 명칭은 기존의 쉼터, 나눔의 집, 중간의 집으로 명명해도 무방하나, 시설에서 지향하는 바 특성별로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시설의 홍보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청소년 쉼터는 일시 보호와 수용이 가능한 곳으로 한다거나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소규모 집단가정 형태의 공간은 나눔의 집으로 명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특히 가출청소년이 많이 오가는 각 도시의 기차역, 버스 터미널 근방에 가출청소년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에게 무료 숙식을 제공하며 상시 상담 서비스를 하거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을 중간의 집으로 명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출청소년 및 비행을 범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특수 교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오전에는 학력 지도, 오후에는 직업훈련을 시키고 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일터까지 줄 수 있는 기숙사가 있는 특수학교 형태의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설치 역시 요구된다.

학교 형태의 쉼터 또는 중간의 집 설립 증대

앞서 언급했듯이 가출청소년 보호·수용시설이 다양화되어야 하며, 시설의 성격에 따라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가출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가출과 장기결석으로 인해 학교로부터 자퇴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순간의 충동으로 가출을 했든, 계획적으로 가출을 했든간에 가출청소년 중 적지 않은 청소년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광의 성지학교의 입학 열망도나 청원군의 양업고등학교 계획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학업을 계속 하기 원하는 청소년에게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기존의 제도권 내 학교에 다녔을 때 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고, 선생님께서부터 이해받을 수 있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도 있으며,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우고 있다는 점에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갈 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마음이 편안해졌으며, 공부할 의욕과 자신감이 생겼다는 등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적한 농촌에 소재하여 생활이 너무 단조롭고, 대안학교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을 느낄 때나 시설설비가 부족한 점이 불만스럽긴 하나, 전반적으로 대안학교는 청소년을 변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가출청소년이 이미 전국적으로 실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이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안학교는 손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며 재정 형편이 열악하고, 인적 자원도 부족하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의 확장은 커녕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와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의 지원과 지역사회 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가출청소년 보호 · 수용시설의 민영화 강화 및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 및 수용시설의 운영은 정부, 대기업, 독지가의 후원등의 방법이나 각 지역내 청소년 기관이나 교회등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등 여러가지로 제안될 수 있다(서울 YMCA, 1991). 최근에는 민간 차원의 복지사업을 권장하는 추세이다. 특히, 청소년 관련 업무는 다른 업무와는 달리 정부의 통제나 지도, 감독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민간의 청소년 활동을 정부가 법률과 행정 ·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

국 사적 청소년복지 전달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은 공적 기관에 대해 형식적이고 거부적인데 반해, 민간이 주도하는 사적 복지기관에 대해서는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사적 복지기관은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이 크게 빈약하다는 공통적 문제를 안고 있다. 서비스의 수혜자가 양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도 일회적·상담, 잠자리 제공, 일회적 행사 참가, 학습장소 제공등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민간 조직은 수입을 회비나 기부금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재정 형편이 불안정하고, 대부분 만성적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일부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기관이라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많은 기관이 빈약한 운영비 때문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할 때, 전화 상담 및 면접 상담을 할 만한 공간과 설비, 가출청소년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맡아서 일할 인원이 필요할 것이다. 가출청소년을 수용하는 경우,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 이보다 더 많은 공간과 설비,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상시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교대해 줄 수 있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부족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파견 지도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하며, 지역사회로부터의 협력을 최대화해야 한다. 공동체 생활을 할 경우, 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치료 및 상담을 위한 시간 확보와 에너지 투여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나 상담자, 사무직 뿐 아니라 공공가정의 가사관리자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와 청소년은 분리된 공간에서 사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좋으므로, 가출청소년용 남녀 침실, 시설관계자용 침실이 필요하고, 목욕실, 화장실, 식당 및 주방, 세탁실, 상담실, 사무실, 시청각실 등이 최소한 필요하며 이에 관련된 시청각 기자재 등의 설비와 장소 임대료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관 또는 강당, 운동장, 작업실 등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이를 다 구비하기는 어렵다.

민간 차원의 가출청소년 복지시설의 역할이나 그 중요성에 비해 사정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인적 자원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소규모 무인가 가출청소년 보호·수용시설의 법인화

가출청소년을 보호·수용하고 있는 소규모의 무인가 사회복지 시설에 사회복지법인 자격을 주고,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용교,1993). 시설 규모면에 볼 때,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설의 규모를 3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300개의 비인가 시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3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다. 가출관련 연구에 의하면 학교의 형태를 제외한 시설의 규모

는 최대 수용능력 20명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다. 복지시설 규모는 소규모인 경우가 수용자에게 보다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고, 효과가 좋다는 것은 주지된 바이나, 법적으로 법인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구성 인원이 30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 것으로 모순된다. 영·유아 보육법에서와 같이 법인, 단체, 개인이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아동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의 허가 역시 재산의 다소로 하기 보다는 그동안 사업을 수행해 온 연한, 사업의 질적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허가와 아동복지 시설 설치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면, 다양한 청소년층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 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출청소년 보호 - 수용시설에서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실시

가출청소년 중에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체적 학대를 당해서 자기비하, 소외감, 우울증, 자살에 대한 생각을 지닌 채 보호기관에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무목적적으로 가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청소년은 답답한 집으로부터 벗어나 주변의 간섭과 통제받기를 거부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에 대해 저항감 및 거부감을 느낀다. 따라서 모든 기관에서 이들의 입

장에 따라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점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지리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 인양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꺼려 보호기관을 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를 반영하고, 구조화된 것에서 벗어나 생활에 기반을 둔 자연스러운 상황 속의 ‘꺼리’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별 청소년가출의 정확한 현황과 각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또한 현행 프로그램의 효과와 문제점들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가출청소년 보호·수용시설을 특화시키고, 프로그램의 중복성을 피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출청소년을 장기간 보호하고 수용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청소년들로 하여금 개인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특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아가서는 최소한의 학교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출청소년 보호를 단기간 하는 경우에는 특정 프로그램을 고집하기 보다는 정보 제공과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주선했 주고 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설에까지 가서 무언가를 할 만큼 여유가 없을 수 있고, 구속받는 것을 꺼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 없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과도기 거주 프로그램을, 위탁 보호에 있는 나이 많은 청소년을 위해서는 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학대나 방임 가정으로부터 벗어난 청소년을 위해서는

부모가 변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귀가했을 때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최소한의 거주와 생계를 보장해주며, 동시에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비하, 소외감, 우울증 등의 정서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감회복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야 한다.

대부분 가출청소년은 흡연, 음주, 약물, 성문제, 유흥업소의 취업 문제등 복잡한 문제가 얹혀져 있기 때문에 문제행동 치유 관련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는 전문가가 장기간 관여하여 청소년의 생활양식을 변화시켜야 하므로 프로그램 비용을 비롯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이 수용시설에서 배우고자 바라는 바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것, 특히 컴퓨터나 악기, 그림등 다양한 기술과 사업 방법을 배우기를 희망하였으며, 운동 역시 배우고 싶어했다. 따라서 동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가출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되, 그 형식에 있어서는 생활에 기반을 둔 자연스러운 활동의 형태로, 청소년이 자유롭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한다해도 청소년들이 그곳을 찾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이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바로 찾아올 수 있도록 접수창고 역할을 하는

PSP(Project Safe Place)프로그램과 같은 것이 운영되어야 한다. PSP는 쉼터를 위한 outreach프로그램으로 1983년 미국 루이즈빌에 설치하였다. 루이즈빌 시내의 교회, 편의점, 피자가게 등 300여 이상의 SP(safe place)가 있으며 문제에 빠진 청소년은 어디에서든 이곳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SP는 검정-노랑색의 다이아몬드 모양의 로고를 통해 표시하고 있다. SP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15분 이내에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를 만나 상담을 하거나 청소년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로 안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4시간 편의점이 많이 보급되어 밤늦게 까지 문을 열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이 자주 가는 장소 중의 하나이므로 이 곳을 활용하면 가출한 청소년들이 긴 방황을 하지 않고 좀 더 빨리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PSP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락이 오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교육받은 자원봉사자, 즉 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 사업의 홍보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교육, 관리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가출청소년 보호 · 수용시설간의 관계망 형성

가출청소년의 재적응을 위해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 · 수용 시설간의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사회관계망 구성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위상 및 업무 영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교류되고, 역할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기 모

임을 통해 정보교환을 하고 조직간의 관계망 형성, 긴급 일시 보호소의 운영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등 가출청소년을 돕는 기관과 실무자 간의 공동 연구, 공동 제언 등의 협력적인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시, 단기, 중기, 장기 등의 보호 시설과 이용 시설로서의 상담 및 교육, 무료 활동 공간등이 다양하게 서로 배치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망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형성되어야 한다.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의뢰 체계는 중앙 단위의 협의체와 지역 단위 협의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에서는 청소년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내고, 각 지역 단위체에서는 지역 청소년에게 복지관, 지역 공부방, 학교, 파출소, 병원, 지역 반사회, 어머니회, 교사 모임 등 작은 지역 모임 차원 활동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주게 한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같은 생활권 내에 있는 다양한 민간 조직간에 조차 수평적 연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가출청소년을 돕는 기관들간의 협력 활동을 꾀하기 위해서는 기관 및 단체간 이기주의를 배제해야 하며 아울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가출청소년 수용을 위한 기업의 참여 권장

최근 들어 많은 기업에서는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과 기업 활

동의·공익성을 내세우면서 공익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청소년문제 해결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가출청소년을 보호·수용하는 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시설 임대료 해 줄 수도 있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 및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환경에의 노출을 억제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 이미지에 부각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공익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장해 주고, 지역 주민의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기업이 주관하는 직업훈련 중간의 집이라든가 대안학교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출청소년 보호·수용시설에서도 역시 민간 기업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자산 확보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직업문화 정착 및 공공 직업 소개의 양성화

어떠한 이유로 가출을 했던 간에 가출청소년은 먹고 지낼 만한 곳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집으로 돌려 보내질까 두려워 신분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서 악덕

고용주를 만나면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미성년자의 약점을 초보 환영, 숙식 제공, 선불준다는 미끼를 가지고 접근하는 인신매매 시장에 걸려 들어 임금은 커녕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미성년자를 취업시장으로 유인하는 업소의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유해환경 업소가 대부분으로 빈곤과 비행다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불량 지역사회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지켜야 할 법, 도덕, 규칙 등의 통제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확립되어 있지 않고 각종 다양한 모순이 존재하게 되어 청소년들은 자기의 행동을 정착시킬 준거를 잃어버리게 되며, 이런 문화에 장기간 접하다 보면 퇴폐주의, 쾌락주의적 사고를 내면화함으로써 가솔 등 비행에 연루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직업문화를 정착시키고 공공 직업소개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환경의 업소에 취업 알선을 함으로써 유해환경에 노출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간신문의 협조가 요구된다. 인신매매조장 광고를 게재하지 말아야 하고, 관계당국에서도 청소년을 유인하는 무단광고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가정이나 학교생활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이러한 광고는 가출의 유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동시에 임금절감을 위해 미성년자를 끊임없이 고용하는 유흥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유해업소의 유인이 아닌 청소년 자신이 선택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가출청소년을 고용했을 때의 제재가 통일되어야 한다.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흥업소에 취직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는 적법하나 미성년자 보호법에는 위법으로 처리되는 등 모순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적용의 일관성이 지켜져야 한다.

학대로 인한 가출청소년의 법적 보호

가출청소년 보호·수용시설에 대한 구상과 지원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가출청소년의 재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부모의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을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 보호조치와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 방임등과 같은 문제행동을 하는 부모로부터 청소년이 보호받을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뢰시 상담 기관이나 장기 보호기관, 치료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서는 자립생활관의 신설이 절실하다.

이상 살펴본 대로 가출청소년의 재가출을 줄이고, 재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중간의 집이나 대안학교의 형태 등 다양한 쉼터가 설립 운영되며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기관의 서비스 담당자는 지역사회 청소년 프로그램의 철학을 이해하게 하고, 청소년들과 일할 때 필요한 기술, 도구 및 정보 등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활동의 형태로 최근의 청소년문화를

반영하는등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가출청소년 보호·수용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의 비인가 복지시설로 시설 설비, 인적 자원이나 재정 면으로 볼 때, 열악한 형편이어서 각 시설이 목표로 하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로 하는 공간등 물리적인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목표에 따라 특화되어야 하며, 특성에 따라 규모도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 보호·수용시설의 주도적 권한은 민간 단체가 갖되, 민간 차원에서의 재정 확보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와의 지속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각 시설과 관련 기관간의 연계가 동일 지역 내에서는 물론, 중앙과 지역 단위간에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 공조체제를 이룬다면, 가출청소년의 재적응을 돕기 위해 우왕좌왕하지 않고 혼선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리라 본다.

청소년가출자는 어른들이 조성해 놓은 사회가치와 구조 속의 희생물이다. 기성세대가 조성한 성인 사회에 수술을 가하지 않은 채 청소년가출에 대한 대책이나 예방책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문조(1992). 유해환경의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 한국 형사
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 9-31.
- 김영지(1995). 가출청소년의 삶과 문화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향초(1996). 가출청소년 연구 I: 연구사와 현황을 중심으로.
등지 봄호 2-4.
- 나동식·이용교역(1991). 가출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노성호(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대한성공회 청소년쉼터(1996). 가출청소년을 위한 치료적 보호
센터로서의 청소년쉼터 사례연구.
- 문화체육부(1996). 청소년백서
- 서울보호관찰소(1994). 보호관찰현황.
- 서울YMCA(1991). 청소년가출에 대한 심포지움Ⅱ - 가출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나.
- 서울YMCA(1995). 청소년쉼터 리포트.
- 서울YMCA(1995). 외국 가출청소년 연구자료집.
- 서울YMCA·문화체육부(1996). 청소년쉼터 운영보고서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우리.
- 엄명용(1995). 청소년가출 현황과 예방 대책. 여의도 정책논단.
131-142.

이용교(1993). 한국 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은평천사원출판부.

이용교(1995). 청소년복지 서비스 기관의 협력방안 모색. 서울
YMCA. 청소년을 돕는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63-76.

표갑수(1993). 청소년 가출의 원인과 현황. 서울 가정법원
자원보호자협회 제 8회 청소년상담 세미나자료집 15-40.

* 가출청소년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 (이용교,1995)

◎ 가출 배경 대 처 방 안

가정에서 학대에 의한 가출	아동학대예방방법의 제정을 위한 운동/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로 격리보호 학대자에 대한 치료시설의 운영
가정에서 방임에 의한 가출	도시빈민지역에 청소년쉼터의 설치 소규모시설에 사회복지법인격 부여 비인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
흥미없는 학교생활에서 가출	입시교육에서 다양한 진로지도로 전환
친구의 권유	다양한 청소년활동으로 사회체험 제공

◎ 가출 후 생활

유형업소에 취업	미성년자의 유형업소 출입을 규제하고 만 18세 미만의 유형업소 취업을 통제 청소년회관과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에서 청소년 놀이공간 제공 유해환경 규제를 위한 감시활동
여관, 업소, 자취로 숙식	여관에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 미성년자의 자취는 보호자의 허락
약물오남용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규제와 약물교육 / 약물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원치료

● 귀가 후의 생활

학교에서 자퇴

학교에서 자퇴억제하고

청소년 쉼터에 위탁교육

재가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습관성일 때 심리치료/

직업훈련등을 통한 사회진출

● 복지기관간의 연대

거의 없거나 비공식적 연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학교,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상담실,

청소년공부방, 병원, 교회등이 상호교류와

이송/ 공동사안에 대한 여론조성과 정책제

안/ 협의기구의 구성, 연구기관과 학회의

구성

* 가출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 Willamette Bridge Program (서울 YMCA, 1995)

이 프로그램은 1987년 오레건주 포트랜드에 있는 Janus Youth Programs에서 2년 시범 프로젝트로 마련된 것으로 그 목표는 청소년들을 도와 길거리 생활에서 독립된 삶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Willamette Bridge

Program이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16세-20세의 남녀 청소년들에게 집을 제공하여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을 돕게끔 하는 자치 모델로서, 집없는 청소년과 길거리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임시 거주지에 이 자치적인 접근책을 적용시켜 성공한 사례이다. 즉 그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끔 하는데 이것은 자유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으로 이 두 부분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바람직한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일상적 기능을 규제하는 자치구조의 책임은 Bridge Jouse동의와 그들을 둘러싼 과정에 있다. 이러한 동의는 이 집의 거주자들과 프로그램 담당자들 간에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부티 나오고 생활목록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경우 거주자들, 직원들, 그리고 프로그램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위임된 활동들과 요구된 프로그램기능 등에 따라서 행동하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프로그램에 있어서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 즉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자유와 공기 간의 균형을 발견하는데 달려 있다. 그 동안 여러가지 방법을 거쳐 지금은 평가체계(Evaluation System)라고 불리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것은 실수와 실패를 허락하면서 동시에 변화를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책임감을 그들의 어깨에 주고 그들 행동의 자연스러운 결과로부터 그들을 옹호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적으로 객관적이고 단지 행동만을 평가하지 개인의 성격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단순히 문제를 토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의

해결을 꾀하였다. 거주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생활스타일에 적응했다. 일정표는 활동타입에 의해서 이름 붙여진 HUBLAWS 일정표로 알려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정(Home), 기상(Up), 취침(Bed), 떠남(Leave), 약속(Appointment), 일(Work), 그리고 학교(School)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평가체계는 간단히 말해서 거주자들이 동의한 내용을 그들이 실제로 행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HUBLAWS 일정표와 비교해 보는 방법이다.

평가 체계는 거주자가 무엇을 하고 있고(동의된 내용과 비교해서 무엇을 했고), 이러한 행동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거주자 스스로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이 곳의 직원은 힘을 과시하는 존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거주자들과 파트너관계 속에서 같이 일을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는 거주자들이 체계에 의해 동기화되고, 어떤 행동의 변화이든지 변화된 행동은 그들에게 내재화되고, 이곳에서 획득한 기술들은 이들이 이곳을 떠나 독립된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성인들을 그들이 같이 일하는 청소년들을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그들을 믿어주어야만 가능하다. 즉 청소년들이 이 곳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 줄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속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직원들과 청소년들이 힘을 서로 나누어 가질 때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이다.

각 기관은 이들 청소년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요, 안전한 쉼터,

음식과 옷, 위기상황에 대한 상담을 해 주고 다시 가족과 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보다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어서 가족과 다시 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신체적, 성적 학대, 알콜 및 기타 약물중독, 심각한 정신적 문제들, 학습능력 부진, 임신이나 십대 부모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일차적인 예방, 응급도피처 제공, 장기적인 과도기 생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가출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푸른 꿈 만들기 (대한성공회, 1996)

푸른 꿈 만들기 프로그램은 가출 및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기능향상을 위한 집단치료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청소년쉼터 활동에서 느끼는 한계와 문제청소년과 학교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구성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호활동으로 인해 도출되어지는 임상적 경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문제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학교체계가 보여주고 있는 대처기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기획되어졌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표1: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증진시킴으로써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하위목표1 자신 및 타인의 성장배경, 가치관에 대한 이해

-하위목표2 건전한 대인관계를 형성 능력 증진

-하위목표3 자기자신 표현능력 향상

목표2: 청소년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하여 개인적인 사회적 기능을 증진시킨다.

-하위목표1 집단경험을 통해 부적응문제를 다루어 줌으로써 학교등교 및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하위목표2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킴.

목표3: 가족내의 응집력과 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가족의 사회심리적인 기능을 강화한다.

-하위목표1 청소년들이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직시하여 부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하위목표2 긍정적인 자녀양육을 통한 부모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회복, 자존감을 고양시킴.

-하위목표3 캠프활동을 통해 가족내의 의사소통을 개선하여 가족문제 해결능력을 증대시킴.

-하위목표4 부모들이 자조집단을 구성하여 역할을 수행할 있도록 이끔.

목표4: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와 공동체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키운다.

-하위목표1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단체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건전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함.

-하위목표2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함.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4단계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단계는 청소년의 소속, 애정욕구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과 담당 복지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단계인 적응 단계이다. 둘째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안정화시키며, 앞으로 진행될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는 개입 단계이다. 셋째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해결 단계이다. 넷째는 각 프로그램에서 느끼고 학습했던 경험들을 강화시켜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는 종료 단계이다. 각각의 단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적응 단계에는 효과성 평가를 위한 사전검사, 각종 심리검사, 건강진단(지역보건소에 의뢰)과 부모 및 학교관계 조정 등의 작업이 포함된다.

개입 및 문제해결 단계에는 개별/집단상담, 부모/가족상담과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건전한 가치습득을 위한 생활지도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약물교육과 성교육을 각 8회에 걸쳐 실시하고, 여가 활동 프로그램, 심성개발 프로그램 및 인간관계 증진 프로그램과 독거노인 방문, 일일보모 활동 등 지역봉사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대상 학생을 시설 내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에 의뢰하기

도 한다. 외부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치료나 병원위탁 프로그램이 있다.

종결 단계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적응훈련을 하고, 효과성 평가를 위한 사후검사를 한다. 또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개인 및 가족상담을 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 하위프로그램은 각각 다른 영역으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의 해결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수행되어 진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설문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무기명이므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끝까지 읽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996. 9.

고 성 혜(한국청소년개발원)

* 다음 내용을 읽고 자신의 상태와 가장 비슷한 것을 골라 v표
하거나 기타란에 적합한 응답을 써 주기 바랍니다.

1. 이 곳에 온 후와 오기 전과 비교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있는대로 고르거나 기타란에 써 주기 바랍니다.

- ① 자신감이 생겼다
- ②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다
- ③ 주변에 대한 불만이 줄었다
- ④ 마음이 편안해졌다
- 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지낼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 ⑥ 별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 ⑦ 기타 ()

2. 이 곳에 온 후와 오기 전과 비교해서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① 좋아졌다
- ② 별 다른 변화가 없다
- ③ 나빠졌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3. 전에 내가 다녔던 학교와 비교해서 이 곳은 어떤 점이 좋습니까? 있는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재미있다
- ② 선생님이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신다
- ③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우고 있다
- ④ 현재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것 같다
- ⑤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있다
- ⑥ 별로 없다
- ⑦ 기타 ()

4. 전에 내가 다녔던 학교와 비교해서 이 곳은 어떤 점이 불편합니까? 있는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생활이 단조롭다
- ② 규율이 너무 엄하다
- ③ 사람들이 이 학교에 대해 편견이 있는 것 같다
- ④ 일과가 너무 빡빡하다
- ⑤ 별로 없다

⑥ 기타 ()

5. 전에 다녔던 학교를 그만 두게 된 이유를 자세히 써 주기 바랍니다.

()

6. 전에 다녔던 친구들 중에는 문제 청소년이 많았습니까?

- ① 많았다
- ② 보통이다
- ③ 적었다

7.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

8. 성별은?

- ① 남
- ② 여

9. 나이는? () 살

10. 이 학교에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① 3개월 미만
- ② 3- 6개월 미만
- ③ 6개월 -1년 미만
- ④ 1년 이상

11. 이 학교를 어떻게 알고 오게 되었습니까?

① 학교선생님

② 부모

③ 친지

④ 친구

⑤ 신문/잡지

⑥ 기타 ()

12. 이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집생각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지 있는대로 골라 V표를 해 주기 바랍니다.

① 몸이 아플 때

②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③ 선생님께서 꾸중을 들었을 때

④ 항상

⑤ 특별한 날(명절/ 생일 등)

⑥ 기타 ()

13. 부모나 형제와는 주로 언제 만납니까?

① 명절/생일 때 주로 만남

② 방학 때

③ 한달에 3-4번

④ 한달에 1-2번

⑤ 일년에 3-4번

⑥ 기타 ()

14. 이 곳 학교생활 중 가장 재미있는 시간은?

()

15. 이 곳에 오기 전에 다녔던 학교는?

① 인문계 고등학교

② 실업계 고등학교

16. 이 곳에 오기 전에 살던 지역은? (예 : 경기도 이천군)
()

17. 부모님은?

- ① 친부모
- ③ 계부, 친모

- ② 친부, 계모
- ④ 부모모두 사망

18.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경우 _____ 어머니의 경우 _____

- ① 국민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⑤ 잘 모르겠음

- ② 중학교 졸업
- ④ 대학교 졸업 이상

19. 집안 월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70만원 미만
- ② 70 - 100만원 미만
- ③ 100 - 150만원 미만
- ④ 150 - 200만원 미만
- ⑤ 200만원 이상
- ⑥ 잘 모르겠음

20. 이 곳에 오기 전에 가출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21. 가출한 동안에 돈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 ① 가출하기 전에 갖고 있던 돈을 쓴다

